

특검, 尹 15시간 대면조사… 오늘 2차 출석 통지

“경찰 신문 못 받는다” 반발 파행
국무회의 등 기본 확인만 이뤄져
“비화폰 등 조사할 것 많이 남아”
尹측 “방어권 확보” 기일변경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
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
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다
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
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횡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
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
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
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
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
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
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
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
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
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
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
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
만,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
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
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
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
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
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
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
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
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고,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
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
(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
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25분께부터 배달된 음식
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25분부
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
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
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조
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다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
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
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
인을 남겼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
령 측에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
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
다.

1차 조사에서 전혀 신문이 이뤄지지 않
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

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즉
답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사 간격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충분한 휴식은 가능할 걸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고, 오늘 조사 때도 적극적으
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할 거라
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응하더
라도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제
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
당 조사는 박 총경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이라, 또다시 양측이 평행선을 달
릴 수 있어서다.

박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조
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
사팀의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에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횡수 제한은 없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
도 시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
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
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
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
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해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
기를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새 정부 미디어정책에 지역신문 위상 강화 반영돼야”

대신협 3차 사장단회의 개최
회원사 연대·역량 강화 역점 추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새 정부 출
범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미디어 정책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신문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일보 등 전국 주요 지역지 29개사
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신협은 지
난 26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5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

고, 최근 정치권 미디어 정책이 방송·통신
분야에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역신문과 관련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현(충남 공주·부
여·청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유일하
다.

개정안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안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매년 지역신
문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지역신
문 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대신협은 또 중소기업 홍보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제1회 대한민국 중소
기업 박람회’를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부
산 벅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내년
에는 첫 해외 박람회 개최도 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사 편집국장 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대신협 영향력 강화 방
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네이
버·다음 등 주요 포털의 최근 동향을 공유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 정기회의

일시: 2025년 6월 26일(목) 17:00 장소: 인천 하버파크호텔



전남일보 등 전국 주요 지역지 29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신협은 지난 26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5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광주 시내버스 광고

全南日報 와 (주) 가온엔 이 함께합니다.



연간이용객
3백 90만명



차량 인가대수
1,040대



운행노선 101개
급행 6개 | 간선 31개 | 지선 6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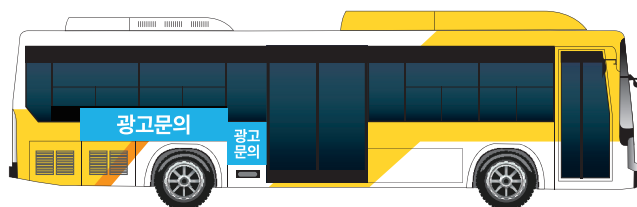


광주버스 1일 왕복 횡수
7~9회

차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 (현대/대우)



인도면 대형·중형 (현대/대우)



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전기차 (현대/대우)



문의
전화

062-366-5002